

EC, 生命工學特許法 草案마련

12개 加盟國 공동적용...紛爭 억제위해

EC(유럽공동체)는 12개가맹국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生命工學特許法 제정을 위해 草案을 마련했다.

EC위원회는 가맹국들의 生命工學에 관한 特許法이 각각 달라 역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日本의 關係법규에 비해 EC과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C위원회가 마련한 生命工學特許法草案은 생체조직자기복제물질 또는 질병이나 가뭄·살충제에 대한 耐性を 극복할 수 있는 식물 그리고 동식물에 투여하는 신유전물질등의 特許範圍를 규정하고 있다.

EC위원회는 이 법이 생체조직의 대용품등 광범위한 生命工學發明品의 保護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生命工學의 特許權에 대해 美國의 경우 이미 하버드大學에서 성공한 인공위발명에 特許權을 주었고, 日本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EC각국의 生命工學特許法은 이산업의 초기단계였던 60년대초의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국의 해석이 서로 달라 EC내에서도 다

른나라에서 적용할 때 분쟁이 잦았었다.

EC "法特許도 質特許 認定

未市販 物質特許品도 保護해 주기로

정부는 EC(유럽공동체)의 製法特許도 행정지도를 통해 物質特許로 認定해 주고 未市販 物質特許品도 保護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폐회된 韓·EC간의 高位協議會에서 EC국가들에 대해서도 美國과 같이 80년 7월 이후의 계류중인 製法特許 出願을 별도의 條約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物質特許로 認定해 주기로 했다는 것.

이번 協議會에서 EC측은 1천 6백개의 製法特許 出願을 補正對象에 包含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保護期間도 15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保護對象 品目を 大幅 줄일 것과 保護期

間을 10년간만 保護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25회

辨理士 합격자 發表

특허청은 20일 하오 제25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19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최고득점자는 70·25점을 얻은 崔京洙씨(27·서울大 造船공학과졸)가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漢永, 尹義燮, 金한얼, 洪基天, 權龍成, 李英, 金鎮炯, 李達魯, 金楨旭, 金永鎬, 金國男, 安相培, 徐種完, 李權熙, 林賢淑, 趙正煥, 朴喜燮, 崔京洙, 朴種萬 (㉜)